

主内平安?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역경과 핍박을 직면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는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현재의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한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전 9:16-17)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넣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쪼록 저의 가는 길에서 저를 위해 배후에서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상황만을 탓하면서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지의 상황이 저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도를 할 때에 한 가지 크게 격려를 받게 된 것은 미주의 한 믿음의 공동체 모임(나성믿음공동체)에서 저를 제 3 후원으로 정하여 태국으로 파송해 주신 일입니다.

요즈음과 같이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후원 결정을 해주신 것이 너무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위에 계신 그분께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방법으로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태국에 들어가는 길에 한국에 몇 가지 처리할 일들이 있어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도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가운데서 해외입국자 전원을 시설에 아니면 자가에 두 주간 동안 격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대전시 변두리 한 외진 곳에서 부득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3일이 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한 주간 정도 건강 검진 등 개인적인 몇 가지 일을 처리한 후에 곧바로 태국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또 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차단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 C국에서 사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길이 모두 막혀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금년에는 태국에서 일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동아시아 C국에서도 사역할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원격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벌써 그들을 위하여 3년째 계속해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즈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C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챗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미국편의 조치에 따라서 사용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현재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조속한 시일 안에 그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검역 음성 확인증이고, 둘째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셋째는 태국에서 사용 가능한 여행자보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 태국 대사관에서 여행허가를 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태국의 어떤 기관에서 보낸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 A Love Story from East Asia by Dr. Young Lee (O\*S)

---

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9 월 중에는 어떻게든 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튼, 태국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잘 마련해서 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에 계신 그분께 적극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에서 이영기 선생